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제 1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주제·강사·일정 확정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3월 27일부터 10주간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일정과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제 1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강사와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학기 목회자세미나의 주제는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강의는 2개 교시로 구성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2

시부터 5시 20분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는 사도행전 연구(강사 이종윤 목사)가 10주간 계속 진행되며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는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라는 주제에 맞춘 10개의 특강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매주 심도있게 이루어지게 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3월 27일(월)까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서울교회 4층 사무국)에서 받는다.

제 1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실시일	제 1 교시	제 2 교시
3. 27.		전통적 서구신학에 대한 비판과 한국 교회를 위한 바람직한 신학운동 김영환(숭실대)
4. 3.	사도행전 연구	국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역할 유은상(서울여대)
4. 10.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정사진과 교회의 역할 전호진(햇불트리나리태)
4. 17.		급변하는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조용훈(한남대)
4. 24.		한국 사회에 기독교 학교의 자리매김 이원설(기독교학교연맹)
5. 1.		민족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교회의 사명 고양인(통일논단)
5. 8.		한국의 전통 문화와 교회 갱신 김문환(서울대)
5. 15.		우리 경제의 미래와 내일을 여는 기독교인의 자세 백영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
5. 22.		한국 언론사에 나타난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대안 강대인(계명대)
5. 29.		개교회 주의와 성장주의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반성과 대책 이종성(한국기독교학술원)

2월 테마전도

옆집사람 모셔오기

전도위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테마전도주일을 정하고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월별테마는 다음과 같다.

- 2월 옆(앞·뒷)집 사람 모셔오기
- 3월 불신 남편(아내) 모셔오기
- 4월 직장 동료 초청하기
- 5월 잃은 양 찾기(다락방·교회학교)
- 6월 불신 부모님 모셔오기
- 7월 가장 가까운 친척 모셔오기
- 8월 불신 자녀 데려오기
- 9월 선배 모셔오기
- 10월 후배 데려오기
- 11월 단골 손님 모셔오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일 오후 5시, 3층 예배실에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지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와 다채로운 2부 순서로 진행되는 주일 어린이 찬양예배로 꽃동산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1월에는 유치부를 지도하시는 최지혜 전도사님과 사랑부를 지도하시는 이상진 목사님께서 손 유희와 시청각 교재를 동원해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들려 주셨어요. 또 주일 어린이 찬양예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찬양, 인형극, 엄마가 들려주

시는 성경 동화 등 특별활동도 했습니다. 2월엔 유아부를 지도하는 저(조대영 전도사)와 초등부를 지도하시는 신미숙 전도사님

“어린이 찬양예배에 초대합니다”

조대영(전도사, 유아부 지도)

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2부 시간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비디오로 볼 수 있고, “나는 소망을 그리는 화가”, 성경

퍼즐 놀이, 새 찬양 배우기 등 특별하고 즐거운 활동을 진행하고 생일 축하 순서도 가질 예정입니다.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 모두 모두 오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주일 오후 5시 3층 예배실이랍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됩시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강해

안일한 부녀에 대한 경고

이사야 32장 9-14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확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도다”(암 4:1). 이 말씀은 드고아의 목동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힘없는 자를 확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슬취한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안일한 여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경고입니다. 본문에는 ‘안일한 여인들이’, ‘염려 없는 딸들이’ 라는 문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만과 허영과 사치와 방종입니다. 이 여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들들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일주의는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주의에 숨어서 비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도 없이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1. 선지자는 왜 여인들에게 경고를 했나

‘안일한 여인’(9절)이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모든 말씀을 여자들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은 남자들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채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책임한 행동과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과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남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들은 염려조차 하지 않고 안일에 빠진 여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안일주의는 모든 악덕과 거짓과 외식과 교만의 온상입니다. 사람은 괴로워서 망하기보다는 안일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안주합니다. 이 세상 안일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데 서양 속담에도 “마음을 빼앗는 자가 그 사람을 빼앗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일주의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점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2. 안일주의와 연락에 취한 이들에게 닥칠 환난

(1) 수확이 없게 된다

국가적·개인적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안일만을 구하는 여인들에게 소작료와 산해진미를 보장하던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빈궁에 빠지게 됩니다(10절). 포도 수확이 없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다는 뜻이며 또한 열매도 없으니 이들에게는 가난이 올 뿐입니다. 안일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2) 국토와 성읍이 폐허가 된다

국토가 폐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회개한 자는 장래의 환난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받은 은혜도 모르지만 장래에 받

“너희 안일한 여인들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딸지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이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쐬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고향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와”



이중운 목사

것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 낭비하고 오용한 죄값입니다. 쐬레와 가시나무(13절)는 열락의 장소까지 덮칠 것입니다. 그들의 안일한 생활은 앞으로 일 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 때 안일한 여인들은 당황할 것입니다(10절).

그들은 돈과 쾌락이 있어서 안일했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산헤립이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3. 안일한 자들이 살 길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안일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9절). “들으라”는 것은 단지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배로 허리를 동이고 회개해야 한다

안일의 옷과 사치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애痛的 옷을 입고 배로 허리를 동이며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범한 죄를 심히 아프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롬 6:23).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죽음과 같이 추하게 보고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

을 심판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환난이 어떻게 비참할 것을 알아야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앞에 닥칠 환난을 예견하고 떨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안일주의, 편리주의, 허영심, 불신앙, 거짓된 삶, 형식주의가 계속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재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알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안일의 옷을 벗고 죄를 애痛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티끌을 뿌리며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환난에 대한 준비는 자기를 부인하고 참회의 삶을 살며 세상적 즐거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돈을 버는 일 자체보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생명의 길고 짧은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구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우리 부서는

교구위원회

교구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김영준(장로, 교구위원장)

교구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직결됩니다. 교구위원회에서는 새 예배당 시대에 대비해서 교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교구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 교구 일꾼의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구 일꾼들은 청지기수련회를 통해 이미 배운 바를 실천할 뿐 아니라 교구수련회나 수요 I·II부 예배 후에 갖는 다락방장 공부 등에 철저히 참석하여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을 확

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구 일꾼들에게는 출석을 비롯한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나 공지 사항 전달 등 교회와 교구 식구들 간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 줄 것이 요청됩니다. 새가족 관리, 전도대상자와 태신자 관리, 잃은 양 찾기, 주 1회 이상 전화심방하기 등에 일꾼들의 수고는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모임과 각종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에 매주 빠짐없이 참석하되 가능한 전기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에 다락방 모임을 갖는 것도 권장합니다. 남자 다락방장은 남성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락방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매월 셋째 주찬양예배 시간에 다락방 소개의 순서를 갖습니다. 또 주일 낮 예배 후

교회당 앞에서 차를 대접하는 봉사도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온 다락방 식구들이 모두 참석하여 다락방의 연합과 친교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교인 관리를 위한 행정 전산화 작업을 좀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교적 자료의 변경 및 수정된 사항들을 재정비하여 교구 운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온몸의 신경이요 세포와도 같이 퍼져 있는 서울교회 12개 교구 127개 전 다락방이 하나님의 군사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돌리는 전도지보다 다락방·교구·일꾼들이 서로 위하고 존경하며 사기를 주장하지 말고 화목을 도모할 때 잃어버리는 양들이 없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드레선교회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

곽동희(집사, 안드레선교회회장)

안드레선교회는 만 40세부터 44세(1956-1960년 생)까지의 젊은 남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와 보라"(요1:39)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 순종하여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후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게로 데리고 온 인물입니다. 우리 안드레선교회는 안드레의 이러한 전도 사역을 본받아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여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을 주님게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안드레 선교회는 올해 실천목표를 "성숙한 신앙생활"로 정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우리 회원들이 세상적·신앙적으로 방향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겠기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드레선교회의 올해 사업계획은 농어촌교회 2곳 지원, 회원 사업장 방문(매월), 기도원 행사(4월), 체육대회(5월), 지원교회 방문(6월), 대의 봉사활동(8월), 문화행사 개최(9월) 등입니다.

우리 선교회의 2월 모임은 15일(화) 오후 7시 30분 교회 2층에서 갖습니다. 연락은 송인권 집사(☎ 553-7367)에게 하시면 됩니다.

10교구 모임을 마치고

사랑의 공동체로 다듬어져 가며

한중호 집사 댁에서 샤론의 꽃 향기가 모락 모락 피어나는 10교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10교구는 올림픽대로를 따라 한강을 끼고 동쪽으로 달리다 보면 서울의 끝자락에 닿는 강동구로부터 하남, 양평, 광주를 거쳐 청주, 온양에 머물다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는 초대형 교구입니다.

한몸의 지체된 형제와의 연합을 위해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기에 걸려 불이 빨갭게 달아오른 은영이와 혜영이랑(성춘모·정희자 집사 가정의 쌍둥이) 뒤늦게 좋은 배필을 만나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아들까지 선물로 받은 정혜순 집사, 김동수 성도가정의 태현이... 현장의 일손들을 뒤로 하고 머나먼 곳에서 단숨에 달려오신 40명의 식구가 모였습니다. 찬양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빌 4:10-20)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 가족 소개가

있었고 합심기도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의 뜨거운 열기처럼 신실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소에 손대접하기를 즐겨하시는 어머니같은 김용숙 권사님은 며칠 전부터 온 가족과 함께 정성으로 준비하시느라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나눔을 본받아 사랑, 희락, 화평...은유, 절제의 아홉가지 재료를 잘 어우러진 소박한 음식들을 제각기 만들어 오셔서 더욱 풍성한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참석한 새 얼굴들을 뵈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감사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의 의미와 우리 속에 계셔서 성결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섭리를 피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구에는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지금은 네 분이냐 해서 큰 힘이 됩니다. 새 성전시대를 맞아 교회를 아끼시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여 맡겨주신 다락방들의 내실을 다지고 지경을 넓혀 앞으로 도 참된 성도의 상을 능력있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듬어지는 것이 우리 10교구 모두의 바램입니다. (한명순 집사)

업동설한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죽은 듯 나 무도 풀도 꽃도 심지어 새소리도 없습니다. 북 잡한 도심 속에 높이 세워져 가던 건물들도 눈 보라에 떨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

축 현장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잔설 이 휘감아 돌고 구석마다 얼음이 되어 쌓여가고 아무리 썰고 덮 어도 눈이 내리면 허사가 되 어 버립니다. "늦어도 올해 성탄절에는..."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지만 지금의 현장 광경은 이렇습니다. 해놓은 일은 별로 없는 데 갈길은 아득하게 멀어 보입니다. 시공회사는 말 없이 사라지고 서슬이 푸른 법 관들의 통고장은 벽에 붙어서 우리 위협하고 협력업자들은 힘을 잃고 두려운 절망감에 빠질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기술이 아닌 비전으로, 벽돌이 아닌 기도로 하려 했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거룩한 일을 풀을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자신의 몸과 함께 친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 속으로 뛰어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위협을 오히려 작은 것으로 여기고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쓸어내고 얼면 녹이고 두려워하는 협력업자에게 용기를

주고 감사 표시를 할 때 오히려 겸손하게 위로 하면서 교회가 직접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순서를 맡은 부서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 현장을 점

령하고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벽들을 쌓으니 날씨는 매서우나 오히려 성령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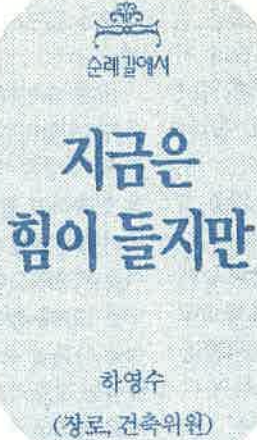
더 놀라운 일은 평소 교회에서 얼굴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던 평범한 성도가 혼자 조용히 현장을 찾아와 소리없이 기도하고 가는 모습과 보행도 자유롭지 못한 할머니 권사님 몇 분들이 아직도 식지 않은 빈대떡을 부쳐 일꾼들을 대접하는 눈물겨운 모습도 있습니다.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두려움의 경외감을 느낍니다.

밤이 오면 새벽이 가깝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두움은 더하듯 갈 길은 멀고 힘은 들지만 분명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 우리의 조상들은 이 제단을 세우면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예배당 건축 현장을 돌아보시고 천국에서도 지워지지 아니할 고귀한 이름 석자를 방명록에 써 놓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갱신되어 가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드리고 머지 않아 우리의 이웃이 될 그곳 주민에 대하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조금씩 뿌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지만.



목사·장로 임기제 도입 20세기 한국 교회 십대사건으로 선정

월간조선 2000년 1월호 별채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인의 일생 - 통계를 통한 한국인의 재발견 - 74면에 20세기 한국교회 10대 사건(시대순)으로 목사·장로 임기제 도입이 선정됐다. 10대 사건은 ① 평양 대부흥운동(1907년) ② 105인 사건(1911년) ③ 3·1운동(1919년) ④ 감리교·장로교 강제 신사참배 결의(1937, 38년) ⑤ 남북분단으로 북한 교회 수난 ⑥ 여성 목사 안수(1953년) ⑦ 70년대 인권 민주화 운동 ⑧ 빌리그레엄 선교 집회(1973) ⑨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1984년) ⑩ 목사 및 장로 임기제 도입(1998년) 등이다.

특히 목사·장로 임기제 도입의 도화선을 붙인 서울교회는 한국 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일들을 그밖에도 여러가지 이루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교도소 설립 법안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목사복 제정 등 가시적인 것 뿐 아니라 민족 75% 복음화를 위한 비전 2020운동, 김치(KIMCHI)세미나를 통한 세계복음화 등이 그것이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이성득	손범선
정운돈	김승환 김입숙 김보경 김서정 김정록
강애자	김영해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1월 30일 현재(다음호에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93	일산교회	이혜문(전)	오유식·이봉규
94	삼달교회	최경수(전)	최금례

이종운 목사 방음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 * 이종운 목사는 7일(월)에 총회주제위원회, 서울여대이사회 그리고 10일(목)엔 연고대 목회자회 임원연석회의와 탈북난민UN추진위원회 등을 소집 또는 참여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박근준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스테반회는 7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
2.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3.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